

LPG 세제혜택 과도하지 않다!

OECD 16개국 중 세금비중 5위 ... 경유와의 형평성 문제 일축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에 부과하는 세금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히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LPG협회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수송용 LPG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1%로 LPG를 수송용으로 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국의 평균 세금 비율인 25.9%에 비해서도 6.2%나 높은 것이다.

수송용 연료 시장에서 경유의 경쟁제품인 LPG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을 고수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정유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LPG협회는 지적했다.

주요 국가의 LPG 세금 비중은 오스트레일리아(9.1%), 일본 (16.3%), 프랑스(24.9%), 네덜란드(29.6%), 독일 (31.0%) 순으로 높았고, 한국보다 높은 곳은 폴란드, 터키, 이태리, 헝가리뿐이었다.

2010년 상반기 현재 리터당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보았을 때 경유와 LPG의 판매가격 비율은 각각 87과 57로 나타났다.

OECD 평균치는 휘발유 가격이 100일 때 경유가 90, LPG가 53으로 한국은 경유가격은 다소 낮고 LPG 가격은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LPG협회 관계자는 “비교국보다 한국에서 경유에 붙는 세금비중이 작고 LPG는 세금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며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LPG에 세제혜택이 지나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유 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44.0%로 OECD 전체 평균(46.2%)에 근접했고, 휘발유는 53.1%로 평균치(53.0%)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30>